

## 장사하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의 응답의 문이 열린다. 경제나 자녀나 건강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흑암 세력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도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권세이고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 바란다.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하신다. 당연히 흑암 세력은 무너져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그 큰 뜻을 향해 가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바란다. 마음으로 언약이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만났다고 이야기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느낀다.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다.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예민한 사람은 어지러울 정도이다. 이런 저런 소리들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지럽고 감이 안 잡힐때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 없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근본이 뭘지 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근본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세상은 말세라고 해서 이런 저런 방법, 대책을 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대책을 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다. 그리고 누리고 선포하는 것이다.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안되는 것 같아도 계속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안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 보면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다. 된다고 했으면 되는 것이다. 내 방법대로 안되기 때문에 내가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봐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으셨다. 우리에게 다 준비해놓고 말세의 징조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어느날 확인하게 되어 있다. 발견하고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언약을 잡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넘어갔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이 부분에 영적 깊이가 깊어질수록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다. 흑암 세력은 더 확실하게 무너진다. 어느날 증거들과 함께 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의 약속 깰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 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요 10: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구원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시다. 구원받을 그들은 내게 주신 모든 만물보다 크고 권세가 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크고 능력이 있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말세를 생각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 했다. 예수님이 장사하라 했으니 우리는 장사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마 25: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는 복음 전하라는 것이다. 말세에는 복음말고 중요한게 없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가 중요하겠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저주에서 건져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많은 응답의 문과 치유의 문과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1. 장사하라

주님께서 장사하라고 했으므로 장사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비유이다. 달란트를 각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나눠주고 주인이 나중에 와서 계산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열쳐녀 비유와 같이 천국에 대한 중요한 비유가 들어 있다. 열쳐녀 비유에서 천국의 비유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문이 닫히면 절대 안 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믿음을 준비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메시지였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사실이니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이다. 복음 전하라는 것이다. 너무나 시급해졌다. 말세이기 때문이다.

먼저 본문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을 정리하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달란트, 두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즉 구원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한달란트를 남기지 못해 바깥으로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배를 만들지 못해서 간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다. 구원은 노력이나 실적으로 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노력을 해서 두배를 만들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간다는 해석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다. 노력과 실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종교이다. 한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은 또 한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지옥으로 갔는가? 본래 구원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 25: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보면 처음 단어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했다. 굳었다는 것은 엄하다는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다. 두 번째 고백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서 모은다고 했다. 무엇을 심어야 수확을 하는 것이다. 심지도 않고 수확을 하는 것은 오로지 창조주만 가능한 것이다. 모으기 위해서는 흩어놓은 것이 있어야 한다. 흩어 놓은것도 없는데 모은다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도 못한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인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마 25: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일나기 때문이다. 엄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한달란트 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믿음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하나님이 겁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해서 땅에 묻어놓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수하면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수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앞에 겁을 내지 않는다. 때로는 이런 면을 악용하기 까지 한다. 이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배짱을 부리기도 한다. 하나님 해보세요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것을 절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까봐. 우리는 사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편하다. 그런데 이 한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한달란트 못만들어서 지옥간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은혜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옥을 간 것이다. 천국은 노력으로 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어느날 믿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이 내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을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장사를 할 생각도 없었겠지만 장사를 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는 이 사람에게는 똑같았을 것이다. 심지어 밖에 쫓겨나서도 이를 갈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는다. 은혜가 없으니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슬퍼서 울기는 한다. 그러나 회개는 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를 간다. 이게 한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한달란트 못받아서 지옥간게 아니라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왜 썼는가?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하라는 것이다. 마 24장도, 계시록도 마찬가지

가지이다. 내가 그 때 일어날 일을 너에게는 말해준다는 것이 계시이다. 그래서 너는 알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준비하고 있더라.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마 24장, 계시록을 쓴 것이다. 그리고 다섯달란트, 두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하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사가 잘 되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섯달란트, 두달란트를 남길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해주놓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다. 사단이 보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이유는 모른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중에 보면 이해를 하고도 남을 이유를 하나님이 이야기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다섯달란트, 두달란트에 들어간 것을 감사해야 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달란트 못 남긴다. 우리는 했다 하면 많이 남기는 것이다. 한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남긴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하기에 안되는 것이다. 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겠지만 해보야 영원히 되지 않는다. 사단이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를 맺을수 있겠는가? 말이 안된다. 사단이 어찌 하나님의 영적 열매를 맺을수 있는가? 아무리 해도 안된다.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안해도 되어지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한다. 한 달란트는 죽어도 안되지만 우리는 장사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장사라고 하는 것이다. 장사는 복음 운동이니가 복음운동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장사이다. 복음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제자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사업하고 자녀키우고 직접 복음도 전하고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다 장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 너의 달란트를 따라 장사하라는 것이다. 지금 시대가 바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주시고, 메인 포인트는 너도 장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장사해야 한다. 장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고전 10:31**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하는 소리 같을수도 있다. 어느날 이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이 장사를 위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 우리가 이 장사를 위해 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장사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전도자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우리는 전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리로 나가라는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전도와 관련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전도지들고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사이다. 그런데 전도는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의 전도자들도 다 그랬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야라야 한다. 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초신자는 상당기간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훈련을 통해 복음을 조금 더 정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복음은 알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은 처음 믿을 때 쓰고 그 다음은 자기 혼자 스스로 산다. 그래서 그 다음단계들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자꾸 질문이 생긴다. 무엇이 안되진다고.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것을 누려야 한다. 사역자는 다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 누리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사역자는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끌려 가도록 도와주는게 팀사역이다. 개인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전도자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도자는 증인이다. 그러면 증거 있어야 한다. 응답 있어야 한다. 그 응답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오늘도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야 증인이 될수 있다. 증거가 있어야 말해줄수 있다. 너 문제가 크냐? 이것만 하면 돼. 하면서 그리스도를 딱 내놓을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수 있으면 우리는 증인이다. 선생님은 힘이 없다. 이론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복음을 정확하게만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나 큰 전도, 깊은 전도하려면, 전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 경험이 깊어야 한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을 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지기 위해서 개인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누리지지 않는다. 누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묘하고 대단한 영역이다.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누리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맘대로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백이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데 잘 안믿어지네요. 그래도 고백합니다. 내 머리로는 맞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써보는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힘든 이유가 그만큼 많은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인생이 무엇이나고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로 전도에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영적 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4월에 8차 캠프 할건데 팀별로 진짜 기도하기 바란다. 기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마음과 가슴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더라도, 명단 적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은 기도를 잘해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했을 뿐이다. 기도는 잘 하는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전략도 알아야 한다. 전략은 그림이다. 이 전략이 없으면 일대일 전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성경에는 사도바울의 전도를 중심으로 보면 그림이 있다. 그것이 내 머리에 그림으로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 전도는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잡고 있는 팀사역전도도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14권 교재를 공부하는 이유도 성경적 전도전략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이다.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전략은 제 2의 복음처럼 된다.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략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율법같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제 2의 복음같은 것이다. 그 외에도 전도와 관련하여 이해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정도만 해도 능히 전도조직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역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자기를 정리하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 되기 바란다.

예수님은 오늘 메시지 통해 너도 장사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2배로 만들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한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나눠 주셨을 것이다. 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한 것과 두 달란트 칭찬한 것이 내용이 똑같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탓이 아니다.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말세를 당한 이 시대를 잘 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이 시대를 향해 어떻게 살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237, 치유, 서밋이다. 이 언약잡고 그리스도 누리야 한다. 이것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는 주님의 장사꾼들이 다 되기 바란다.